

제36차 CCAMLR 연례회의의 결과 및 시사점



해양수산부

01. CCAMLR란?

KOPRI
극지연구소

01. CCAMLR 협약수역도



CCAMLR

Commission for the
Conservation of Antarctic
Marine Living Resources

Convention Area
Statistical Area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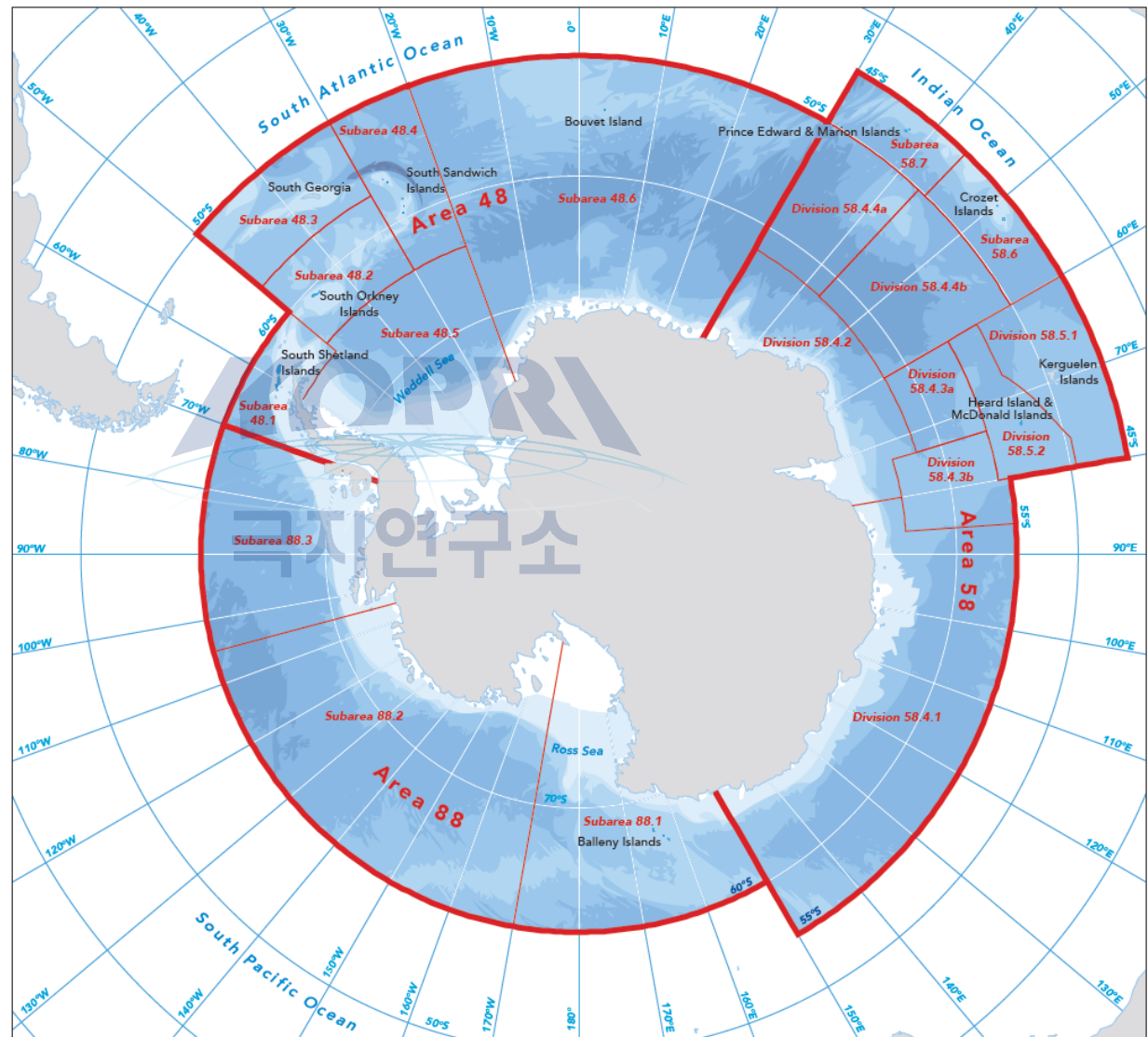
0 500 1000 1500 2000 km

1:45 000 000

South Pole Lambert Azimuthal Equal
Area projection



<http://gis.ccamlr.org>



02. CCAMLR 역할

설립 목적

- 남극조약(Antarctic Treaty) 자문기구 9차 회의 결의(1980)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 7조에 의건, 남극해양생물 자원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설립(1982)

관리 대상

- 어류, 연체동물, 갑각류 및 조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남극 해양생물을 관리

보존조치	주요 내용
CM10-01	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에 대한 허가 및 검색의무
CM10-10	CCAMLR 보존조치 이행평가 절차
CM21-02	시험어업 기준
CM22-06	저층어업 기준
CM24-02	바닷새 보호를 위한 연승어구 무게 증명
CM25-02	연승조업시 바닷새 우발적 사망 최소화
CM25-03	트롤 조업 중 바닷새 및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
CM51-01	크릴의 예방적 한계 어획량
CM91-02	남극특별관리와 보호구역 보호
CM91-04	해양보호구역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

03. CCAMLR 어장의 가치

지 역	타겟 어종	어획한도(톤)	비고	우리나라 어획실적(톤)	
합 계	이빨고기류	18,051		1,242.3	7.0%
Subarea 48.3	파타고니아이빨고기	2,750		0	
Subarea 48.4	이빨고기류	85		0	
Subarea 48.6	남극 이빨고기	510		0	
Division 58.4.1	남극 이빨고기	532		133.1	25.0%
Division 58.4.2	남극 이빨고기	35		20	57.1%
Division 58.4.3a	파타고니아이빨고기	32		0	
Division 58.4.3b	남극 이빨고기	0		0	
Division 58.5.1	파타고니아이빨고기	5,050	프랑스 EEZ	0	
Division 58.5.2	파타고니아이빨고기	3,405	호주 EEZ	0	
Subarea 58.6	파타고니아이빨고기	1,300	프랑스 EEZ	0	
Subarea 58.7	파타고니아이빨고기	575	남아공 EEZ	0	
Subarea 88.1	남극 이빨고기	2,870		799.7	27.9%
Subarea 88.2	남극 이빨고기	619		171.0	27.6%
Subarea 88.3	남극 이빨고기	171	한국(과학)	118.5	69.3%
Subarea 48.2	이빨고기류	75	우크라이나(과학)	0	
Division 58.4.4a,b	이빨고기류	42	일본, 프랑스(과학)	0	

- EEZ 수역 제외 시 총 어획한도 **7,721톤** 중 우리나라 어선은 **1,242톤(16.1%)**을 어획하고 있으며, **약 3,100만불**의 가치가 있음
- 크릴은 연간 **약 2만톤** 내외를 어획하며, **약 2,000만불**의 가치가 있음

04. 남극 수역에서의 조업은?

남극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하며 관리하는 이유

- 남극 수역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부족 (data poor area)
- 과학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어업 활동을 허용
- '92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(모라토리엄)된 중부 베링해 공해수역과 달리 지속적 자원조사와 관리를 통해 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
- 그러나,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연구를 보다 필요로 함

02. 연례회의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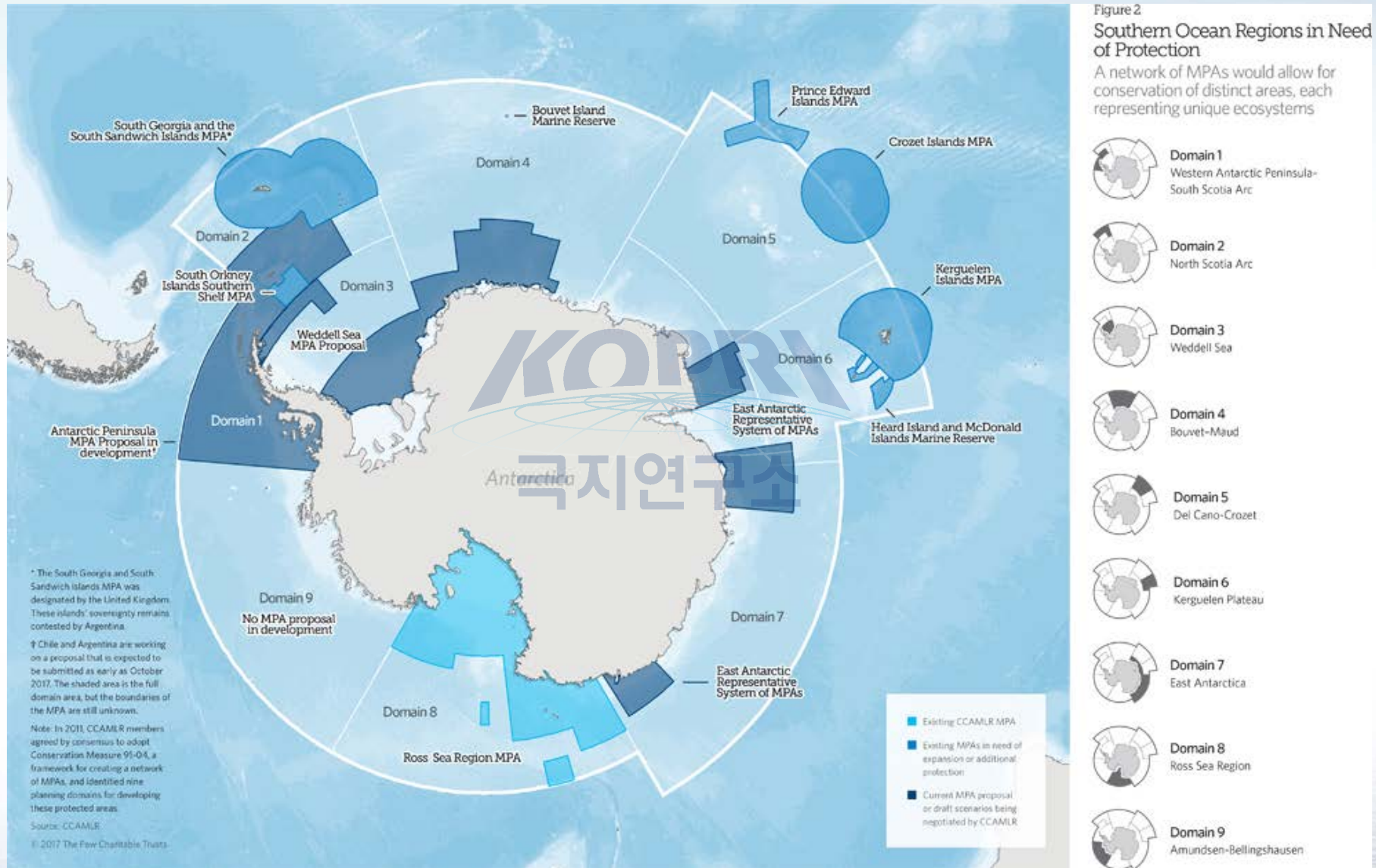
KOPRI
극지연구소

01. 해양보호구역 논의

해양보호구역(Marine Protected Area) 논의 대두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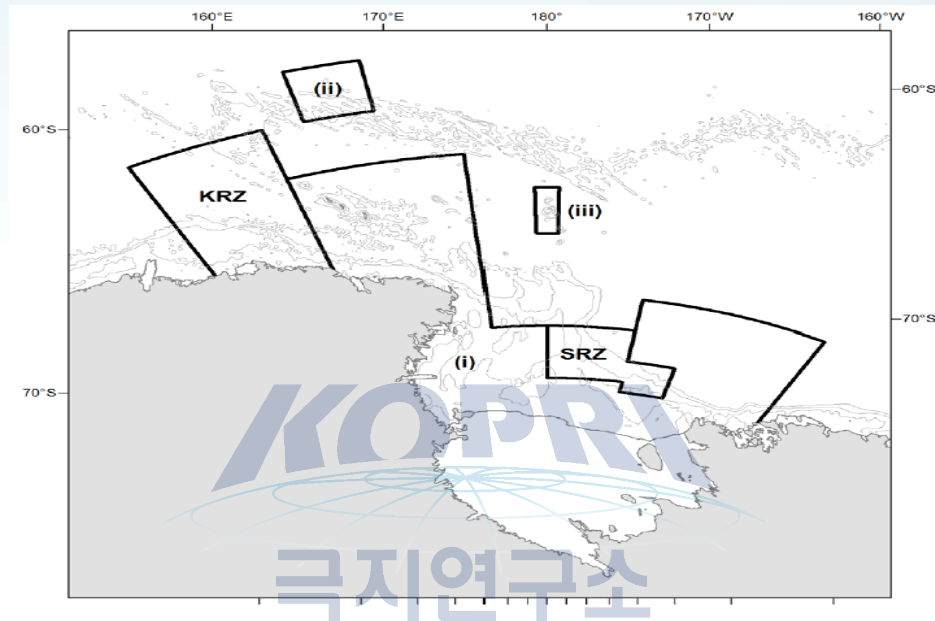
-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(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)에서 최초로 논의
- 2012년까지 MPA 네트워크를 형성하고, 각 국가들은 MPA를 설정, 확대할 것을 결정
- 이후 생물다양성협약(CBD)에서 각 국의 MPA 설정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었으며, 현재는 공해상에서의 MPA까지 범위가 확대

02. MPA 설정을 위한 CCAMLR의 노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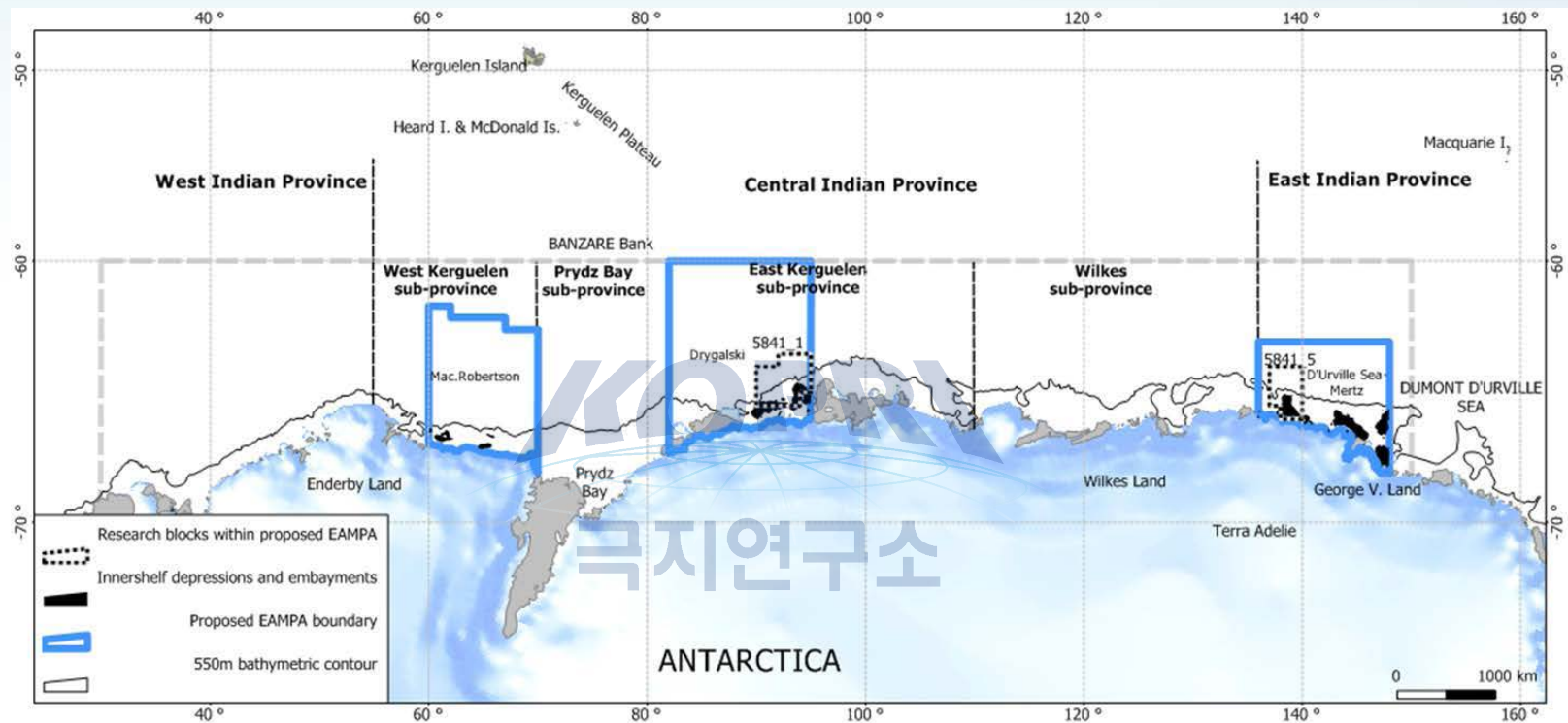
제30차 연례회의에서 남극 수역을 9개 도메인으로 구분

03. 로스해 MPA(채택 완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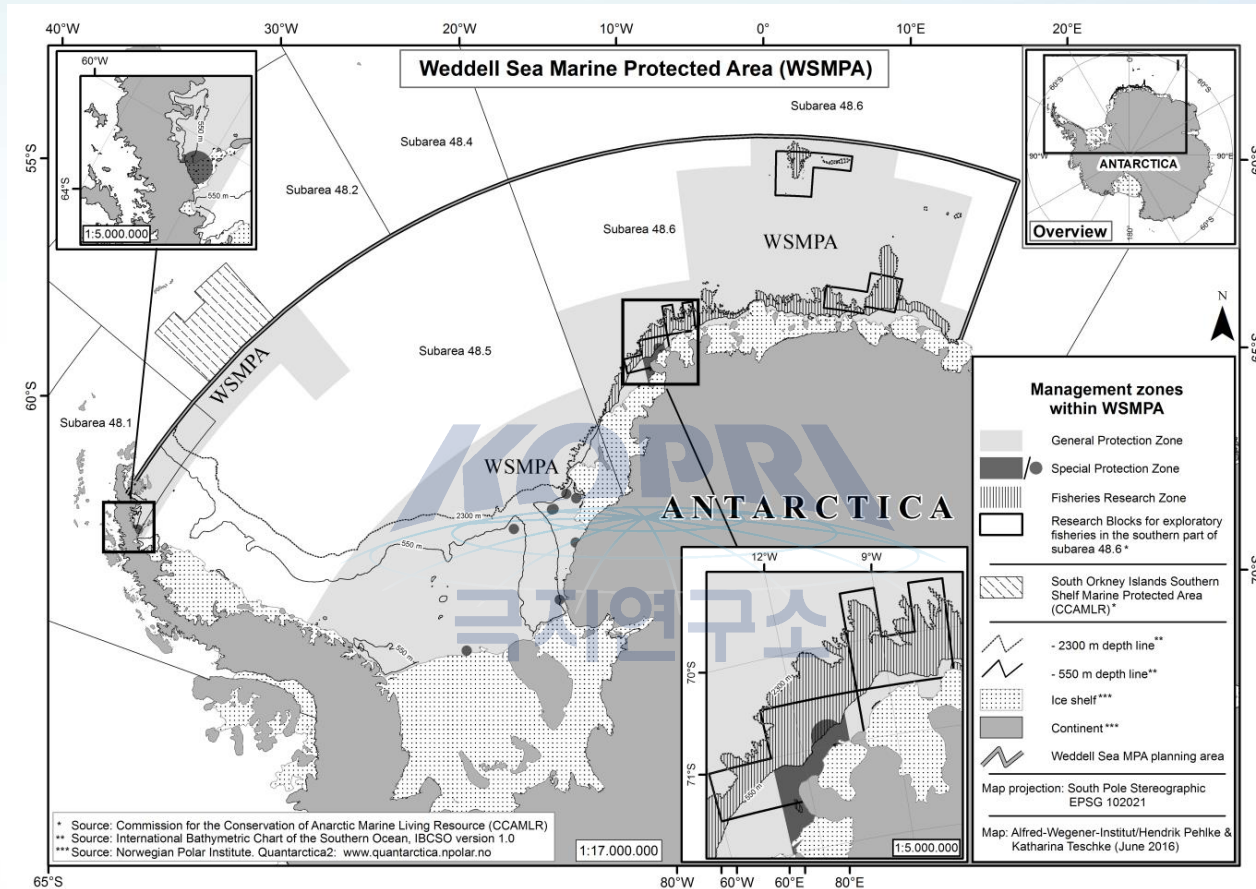
- 해양생물종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**로스해의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존·관리**하기 위해 미국, 뉴질랜드가 '12년 최초 발의하였으며, '16년 채택
- 한국은 금년 연례회의에서 '17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5개년 남극 종합 연구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음

04. 동부남극 MP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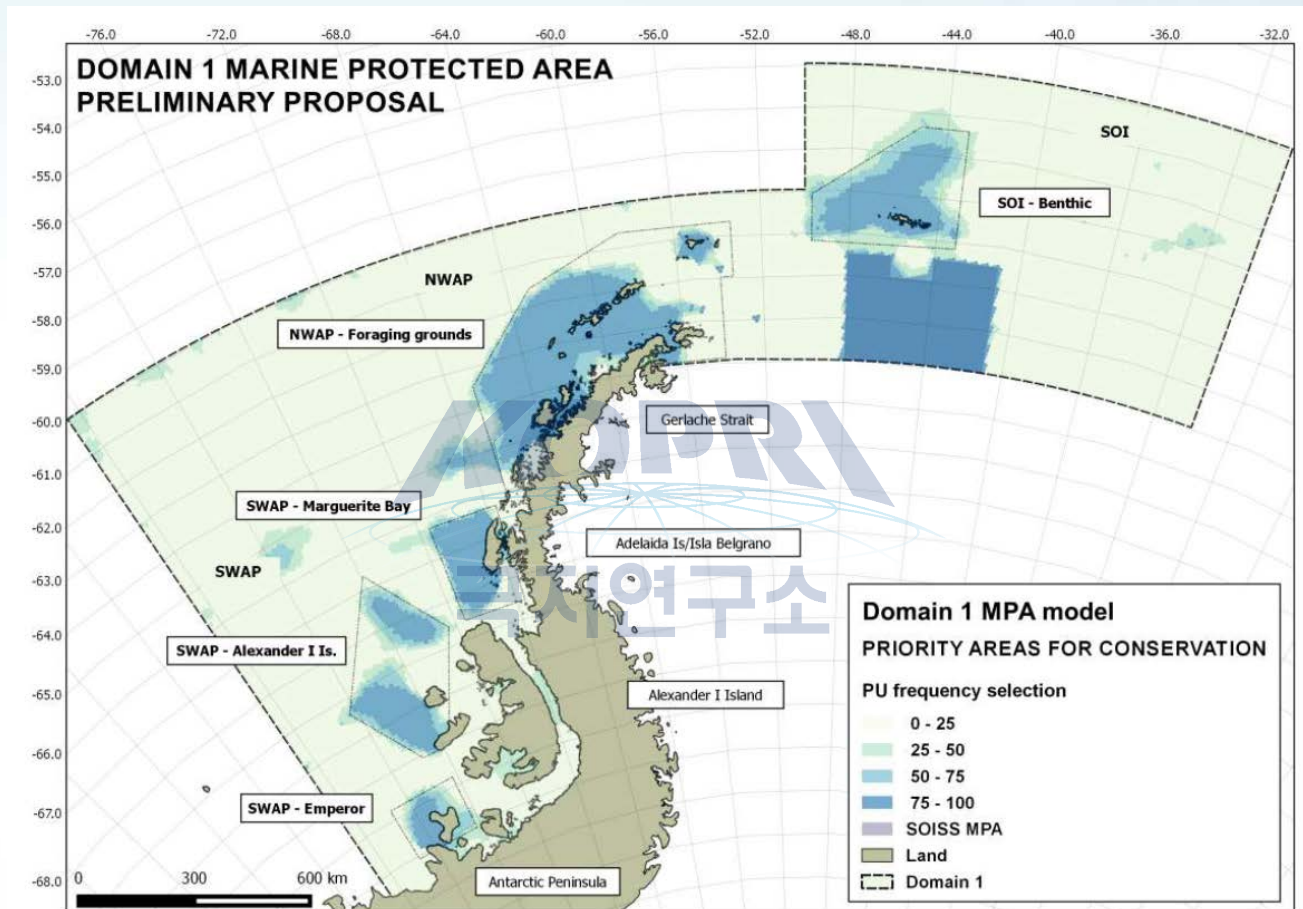
- 호주, 뉴질랜드, EU 등이 MPA 채택을 위해 지속 논의
- 우리나라의 경우 조업, 과학연구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

05. 웨델해 MPA



- 독일을 중심으로 MPA 채택을 위해 지속 노력 중
- 해당 수역에 대한 과학자료가 다소 부족하고, MPA 설정 방식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이해도 등이 낮아 '18년 2월 워크숍 개최 예정

06. 서부남극반도 MPA



-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금년에 최초로 제안
- 한국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, '17.11.24일까지 전문가 e-group 논의 참석 대상 모집 중(가장 개방된 방식으로 MPA 설정 진행)

03. 시사점

KOPRI
극지연구소

01. 과학연구 중심의 참여 필요

- 정부의 남극 관련 종합계획 및 연구과제 수립 시 남극 수역에서의 MPA 설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, 과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



-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어업에 한정되어 있으나, 안정적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남극 수역에 대한 과학적 기여를 보일 필요가 있음

감사합니다

극지연구소



해양수산부

